***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2일 화요일 |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 61호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66호)

올해 태양절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지 90돌이 되는 대경사의 날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일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7천만겨레의 대명절이며 영원무궁할 주체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인 대축일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은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혁명역사위에 불멸의 혁명실록을 아로새기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이다.

조국광복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시였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었으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사상이론, 특출한 영도실력, 거룩한 풍모의 모든 면에서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구현하시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며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시었다.

오늘 온 인류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모시고 있는 한 남측변혁과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애국민중들과 함께 올해 태양절을 주체시대의 최대명절로 뜻깊게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태양절을 맞이하여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글을 발표한다.

2. 태양절이 있는 4월을 ≪태양절기념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와 통일혁명전략을 연구토론하는 모임을 비롯하여 기념강연회, 논문발표회, 영화감상회, 총화모임 등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를 조직진행한다.

3. 이 기념월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권,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경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깊이 학습한다.

4. 태양절을 전후해서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대외기관지인 ≪통일여명≫과 ≪6.15주간≫을 경축특간호로 발행하며 피디에프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다.

5. 주체혁명무력 창건 70돌이 되는 4월 25일에 즈음하여 ≪청년혁신구호≫를 공표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측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91 (2002)년 4월 1일
서울

루마니아 TV방송, ≪아리랑≫ 준비 소식 보도

루마니아의 ≪코로텔≫을 비롯한 주요 TV방송들이 지난 3월 26일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소식을 보도했습니다.

TV들은 조선민중은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한데 이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이하는 커다란 기쁨에 넘쳐 있다면서 조선의 평양의 5월1일 경기장에서는 4월말부터 6월말까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성황리에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31일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5)

4 세기와더불어
• 5장 3절 2.부장에는 무장으로(1)

6 칭송
•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
• 4월의 찬가
• 세계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도자

7 구국의 소리
• 한나라당의 반북대결적 대북기본노선
• 매국노의 악습
• 국제사회 미국의 핵테세 검토 규탄
• 또다시 버림받은 일본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31일 보도
•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로동신문 정론 주체91, 3/22)

12 평양방송
• 고난의 행군, 강행군 승리의 비결

13 아리랑뉴스
• 민주노총, 발전노조 해결 안되면 무조건 총파업
• 한미 당국의 LPP협정 체결은 국민 기만
• F-15K 선정, 67%가 반대
• 클린턴 부시 행정부에 대북정책 이례적 비판
• 70년대 전향 공작 기관 개입 물증 확보

15 운동강좌
• 일국일당제 (1)

16 조국통일3대헌장
•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3)

주체사상에 대하여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면 반드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① 사상에서 주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 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개나라 당과 인민은 자기나라 혁명의 주인이며 자기나라 혁명을 잘 하는 것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의 기본임무입니다. 세계혁명도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을 잘하고 그 기초위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잘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나라 당과 인민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은 자주적인 계급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개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지침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그 나라 혁명적 당의 노선과 정책입니다. 자기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자기인민의 요구와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갈 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곧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야 사상에서 주체가 확고히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것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자기나라의 것을 잘 알아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자기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 열정을 높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조선인민의 풍습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혁명역사, 혁명전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체가 선 참된 조선의 애국자,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 자존심,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 수 없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 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 오랫동안 남의 압박을 받아온 작은나라 인민일수록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동화책동과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작은나라들에서는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문화, 자기인민의 감정에 맞고 노동계급적 선이 선 주체적인 문화를 건설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상에서 주체를 더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복고주의적 경향과 허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그 우수한 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다른나라의 문화 가운데서도 자기인민의 감정에 맞는 진보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에서 남을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상해방이며 새로운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혁명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그와 대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배격하여야 하며 특히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 굴종사상이며, 자기나라, 자기민족을 스스로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남을 떠받들고 남에게 추종하는 데로부터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입니다. 공미숭미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의 해독성은 오늘 남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부식한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은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을 짓밟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적 독소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공미숭미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도 조국의 자주적 통일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투쟁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투쟁을 계속 강화함으로서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② 정치에서 자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었습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직접 정치에 의존하는 것만큼 혁명위업의 운명이 결국은 정치적 자주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는 주권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려야 합니다.

정치적 역량은 혁명역량에서 기본을 이룹니다.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자주권을 쟁취하고 고수할 수 있으며 자주적인 정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리자면 혁명의 지도역량인 당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입니다. 당과 인민은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합니다. 정치에서 기본은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야만 자주적인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됩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노선과 정책을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의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것입니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입니다. 그 누구도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됩니다. 자기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주의적 단결은 원래 자원적이고 평등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국제주의적 단결은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위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영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블록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단결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고수할 것이며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내일계속)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3)

로작의 셋째 체계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에서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밝히였다. 문헌의 이 체계에서는 먼저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6페지)**

로작은 먼저 주체사상의 이 원리가 주체사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에 놓여 있는 원리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운동의 주체로 되는 근거를 밝혔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 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로작은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반동, 혁명의 대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문헌은 또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한 주객관적조건을 밝혔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특히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9페지)**

주체사상의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힌 원리이다. 로작은 먼저 인류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되는 근거를 밝혔다.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합법칙성을 밝혔다.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로작은 계속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국제적성격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목적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이라는것을 밝혔다.

로작은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근본요구를 밝혔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자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 나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계속)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2. 무장에는 무장으로 (1)

9.18사변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항일전쟁을 시급히 개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부정의의 포성으로 대답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가들은 모두 지하에서 나와 자기진지를 차지하였다. 대륙을 뒤흔드는 포성에 만주지방사람들은 그해 가을 단단히 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포성은 사람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고 분발시키었다. 적의 폭압으로 초토화되었던 만주지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투쟁기운이 태동하였다.

우리는 군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 만주지방사람들은 폭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때문에 누구나 고민하였다. 혁명을 다음단계에로 상승시키자면 그들에게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격문이나 뿌리고 빈말공부나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실패에 습관된 군중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자면 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궐기시키고 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지어야만 하였다.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설사 몇몇 선각자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크게 은을 낼 수 없었다.

9.18사변의 발발은 동만지방 인민들이 다시한번 투쟁에 일떠설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국내인민들의 폭동진출이 또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소작쟁의와 반일폭동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공원동척농장 소작쟁의, 룡천불이농장 소작쟁의, 김제다목농장 소작쟁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룡천지구에서는 1929년 이후에도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때 그곳 조직들이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 투쟁을 잘하였다. 룡천땅에는 우리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 영흥의 3000여명의 농민들과 삼척의 2000여명 농민들은 9.18사별 후 ≪비상시국≫을 표방하며 파쑈적인 폭압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는 일제를 반대하여 큰 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때 우리는 간도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조직하였다. 각지의 투쟁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선전대, 규찰대를 두고 삐라와 격문을 찍어내며 투쟁구호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한 다음 혁명조직구별로 추수투쟁에 들어섰다. 초기의 투쟁은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투쟁이었다. 한때 어떤 력사가들은 이 투쟁에 ≪추수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었는데 나는 그런 명명을 적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추수투쟁은 5.30폭동의 모방이 아니고 재판도 아니었다. 이 투쟁은 리립삼의 좌경망동적인 사상여독을 완전히 청산한 기초 우에서 새로운 전술적 원칙에 의하여 전개한 승리한 대중투쟁이었다. 5.30폭동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주역을 놀았지만 추수투쟁에서는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키를 잡고 군중을 지휘하였다.

추수투쟁은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5.30폭동이 변전소와 교육기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 자산가 일반을 타도하면서 방화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면 추수투쟁참가자들은 소작료의 3.7제, 4.6제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린접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였다. 소작료를 낮추라는 요구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처지로 볼 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였다. 그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길림성정부도 소작료를 3.7-4.6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 폭력이 발동된 것은 투쟁위원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나서는 악질지주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총검으로 탄압하는 군경들에 한해서였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완고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량곡을 밭에서 3.7제나 4.6제의 비률로 소작인의 몫을 실어가거나 창고를 해치고 나누어가졌다.

략탈적인 동척금융부와 고리대금업자들, 일제의 통치를 협조하는 조선인거류민회와 같은 반동단체들도 투쟁의 과녁이 되었다. 내가 연길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지도하고 안도로 돌아온 어느날이였다. 5.30폭동 후 일제의 수사를 피해 숨어다니던 최동화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추수투쟁이 점점 폭력적인 성격을 띠여가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안도지구에서 5.30폭동을 선동한 장본인이고 또 후에는 그 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규정한 우리의 입장에 의견을 가지고 론쟁까지 하겠다고 하던 그가 돌변하여 폭력의 유해설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5.30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비난하던 동무네가 순수한 경제투쟁에서 폭력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

최동화는 이런 질문을 하고나서 팔짱을 지르고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마 정통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5.30때 제창한 ≪붉은 폭력≫과 우리가 추수투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폭력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닙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례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따져볼 사이도 없이 나는 그만 이렇게 되묻고 말았다.

≪물론 미세한 차이야 있겠지. 그러나 폭력이야 이렇든 저렇든 폭력이 아니겠소.≫

≪우리는 정당한 리유로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례를 들어 지주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력으로 쌀창고를 헤쳤습니다. 군경들이 사람들을 잡아갈 때면 실력행사로 동지들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 놈들이 폭력을 휘둘러 투쟁을 탄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내가 몰라서 동무네를 시비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1대1로 완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요. 5.30폭동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었소. 우리 혁명은 불행하게도 퇴조기에 들어섰소.≫

≪퇴조기라구요?≫

≪그렇소. 퇴조기요. 이보퇴각의 시기요. 쓰똘리삔반동기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암담하지 않았을 거요. 관동군이 일거에 전만주를 강점한 것을 보지 못하오? 장학량의 30만 대군도 퇴각했소. 이런 때에 혁명력량을 로출시키지 말구 보존해야 한단 말이요. 적을 서뿔리 건드리다가는 동만땅에서 정신년의 대토벌과 같은 참사가 재연될 수 있소.≫

최동화는 추수투쟁이 폭력투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고 무장을 드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무장투쟁구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고 사상누각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실 그와의 론쟁은 힘에 부친 것이었다. 최동화란 사람이 원래 두뇌도 명석하고 공산주의의식도 높은 지식인이어서 웬만한 말은 이가 들지 않았다. 그는 말끝마다 고전의 명제를 끌어내여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론증하군했는데 다 아귀가 맞았다. 최동화를 납득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은 결곡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갔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는 일제의 대대적인 무장공세나 장학량군의 패주나 독립군의 와해와 같은 불리한 징후들은 보면서도 국내와 동만 인민들의 폭동적 진출은 전혀

유화 ≪분노≫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분명히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있었다. 반혁명의 공세와 비겁한 무리들의 패주가 곧 혁명의 퇴조기로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동향에 달려있었다. 최동화는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인민대중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과소평가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는 최동화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와의 근본 적 차이를 느끼였다. 그들과 우리와의 모든 차이는 결국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는가하는데서부터 산생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리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남처럼 지낸 것을 바로 그 차이 때문이였다. 나는 최동화에게 말하였다.

≪역설이라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민대중이 일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고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조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투쟁을 끝낸 다음에는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조직화해서 항일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세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 결심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동화는 더 말을 못하고 쓴 입을 다시며 돌아갔다.

최동화와 같은 사람들이 혁명적 폭력의 불리성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주로를 조금도 리탈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추수투쟁을 지휘하였다. 10여만명의 간도농민들은 1931년 9월부터 그해말까지 일본군경들과 반동군벌의 야만적인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린 투쟁을 벌이었다. 이 투쟁과정에 조선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개구지방 인민들이 시위도중 두만강얼음우에서 일만군경들과 벌인 육박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만주지방사람들의 심혼을 흔들어놓은 화제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녀성투사 김순희의 극적인 최후에 대한 일화도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났다. 김순희는 약수동의 적위대원이였고 추수투쟁위원회의 위원이였다. 약수동에 나타난 토벌대놈들은 만삭이 된 그의 배를 총끝으로 쿡쿡 찌르며 배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순희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일본수비대원들과 령사관경찰들을 쏘아보면서 ≪잘 낳으면 임금이구 못낳아도 대문전거리를 지나다니는 너 같은 것들이다≫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여 적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는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자기의 혀까지 끊어버리었다. 그는 적들이 싸지른 불 속에서 22살의 아까운 꽃나이를 마치었다. 추수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 투쟁을 통하여 동만지방 인민들은 신심을 얻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투쟁의 승패가 대중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방법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추수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경이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다.

대중은 추수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5.30폭동을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냈으며 폭력의 량이 결코 투쟁전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다. 5.30폭동이 실패한 원인이 폭력을 적에 투하된 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추수투쟁이 승리한 요인 역시 폭력이 많이 투하된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다 잘 알게 되었다. 폭력은 결코 만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하고 분별있는 시기적절한 폭력만이 그것을 틀어쥔 사람들에게 승리를 기약해줄 수 있다. 오직 그런 폭력만이 사회를 개조하고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런 폭력만을 지지할 뿐이다.

문제는 대중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하며 지휘하는가하는 데 달려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놓은 셈이었다. 추수투쟁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평화적 방법과 폭력적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은 독특한 투쟁이었다. 다음해 봄에 있은 춘황투쟁도 이런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추수투쟁을 통하여 조중인민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유대가 공고화되었다. 추수투쟁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되었다. 이 투쟁대오에서 소박한 보통사람들이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났다.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추수투쟁에서 훈련된 수많은 핵심들로써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핵심들이 마련된 것은 미구에 도래하게 될 무장투쟁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었다. 추수투쟁과정에서 배출된 수많은 청년혁명가들이 훗날 동만의 각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의 골간으로 되었다. 나는 추수투쟁을 지도하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투쟁 속에서 발현되고 있던 동만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로운 단계의 혁명로선을 모색하고 있던 나를 무한히 고무해주었으며 우리가 일단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혈전을 벌이게 되면 대중이 반드시 우리를 지지성원해나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추수투쟁의 불길이 온 동만땅에 번져가고 있던 1931년 10월에 나는 함경북도 종성지방에 잠깐 다녀왔다. 내가 종성에 나가게 된 것은 국내동무들을 만나 무장투쟁문제를 론의하고 륙읍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무장투쟁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주자는데 있었다. 나를 종성까지 안내한 것은 채수항과 오빈이였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었으며 거기에는 그의 처자가 있었다. 그의 선친들은 구한국말기까지 거기서 살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종성좌수의 벼슬을 지냈다. 채수항이네 일가가 조국을 떠나 화룡현 금곡땅으로 이주한 것은 ≪한일합병≫ 직후였다. 채수항은 간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나 항상 어린 시절의 꿈이 묻혀있는 고향땅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종성으로 건너갈때마다 기쁨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기분상태가 별로 침울해보였다. 나는 추수투쟁의 파도가 채수항의 집 낟가리도 헐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넌지시 물었다.

≪채동무네도 수탈의 대상이 된게 아니요?≫

채수항이네 집은 부유한 지주가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는 덕신사 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탈은 무슨 수탈, 우리는 농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3.7제의 비률로 밭에서 지방 곡식을 나누어주었소.≫

≪현당서기네 가정이 다르긴 달라. 그런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소?≫

≪일부 사람들이 나더러 아버지를 설복하여 사장직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만.≫

채수항은 자기 아버지가 혁명조직의 위임을 받고 덕신사사장의 자리를 맡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규률이 규률이니만치 아버지는 그 내막을 아들에게 까밝힐 수 없었다. 그러니 채수항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듣고보니 채수항이 머리를 썩일만도 하였다. 그 당시 상급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군들중에는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극단적인 요구를 마구 내리먹여 아래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좌경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채수항에게 아버지와의 계급적 ≪계선≫을 가르지 못했다는 ≪과오≫를 뒤집어씌워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기까지 하였다. 나는 채수항의 울적한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자 채수항은 롱조로 이제 우리 군대가 조직되면 선참으로 입대하여 기관총수로 되겠다고 하였다.

≪무관은 어울리지 않아. 채동무한테야 문관이 천분이지.≫

나도 웃으면서 롱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롱속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는 그를 타고난 정치일군이라고 생각하였다. 채수항이 만일 살아남아서 혁명군에 입대하였더라면 틀림없이 련대나 사단급의 정치일군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격대를 창건하고 무장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그는 대립자부근에서 일본 토벌대 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오빈은 룡정동흥중학교 시절부터 체육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훈춘현 운동대회에서 씨름에 1등을 하여 황소까지 탄 일이 있는 소탈하고 쾌활하고 날파람있는 동무였다. 나는 오빈이야말로 혁명군대의 맹장이 될 수 있는 무관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혁명군대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가늠해보는 나의 버릇은 이 무렵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항일전쟁을 목전에 둔 당시의 긴박한 정세가 나를 그러한 타산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선건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는 동관진의 두량조합 콩정선장에 들리었다. 이 조합에서는 일제가 만주에서 략탈해오는 콩을 등급별로 나누어 계량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 일본으로 실어보내는 일을 하였다.

(내일 계속)

선전화 ≪반동지주들의 창고를 헤쳐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자≫

일화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

김정일장군의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은 인민군대에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중요한 과업들을 맡겨 주시는 막중한 믿음이다.

과업은 믿음이란 말이 있다. 믿기때문에 과업을 주는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구상하시는 중대하고 어려운 건설과제들은 언제나 인민군대에 맡겨 주신다.

거기에는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의도를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무조건 철저히 실현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충실성에 대한 그분의 믿음이 짙게 깔려 있다.

인민군대가 맡아 하고 있던 금수산기념궁전교양마당공사가 마지막단계의 작업과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였다.

뜻밖에도 당원돌격대와 다른 건설기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더 잘 모시기 위한 공사에서 인민군대 혼자서만 영광을 독차지하겠는가, 교양마당공사의 다음단계작업만이라도 우리에게 넘겨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부대지휘관이 이런 ≪압력≫을 막아 낼 길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던 1995년 1월 어느 날 아침 장군님께서 기념궁전광장건설장에 나오시였다.

분수터 좌우로 드넓게 생겨 난 광장터전을 만족스럽게 둘러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사이 군인들이 일을 많이 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장군님의 높은 신임을 또다시 받아 안은 지휘관은 교양마당공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들이 끝까지 맡아 할것을 희망하는 군인들의 일치한 소망을 그분께 말씀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

얼마전에도 광장 우측에 건설하게 될 다리주변 도로공사를 놓고 여러 단위들에서 저마끔 자기들이 그것을 맡아 하려고 서로 싱갱이질을 할 때 장군님께서 인민군대가 맡아 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셨던 일이 그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던것이다.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장군님의 이 절대적믿음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던 지휘관은 교양마당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보고 드리면 이번에도 그분께서 우리 군인들에게 그것을 맡겨 주실것이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간절한 심정을 말씀 드렸다.

≪…지금 다른 기관들에서 다음단계의 교양마당작업만은 자기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 공사를 끝까지 다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지휘관의 모습은 마치 부모들앞에서 아는 투정질을 하며 응석을 부리는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과 흡사했다.

그러한 지휘관을 한동안 너그럽게 지켜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일욕심만은 어쩔수 없으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소원대로 교양마당공사를 군인들이 다 맡아 할데 대하여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예견대로 그분께서는 또다시 군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 주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모퉁이마다에 인민군대를 불러 주시고 영광의 자리마다에 군대를 세워 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신다.

송시

4월의 찬가

4월의 환희로
세상의 꽃들은 망울을 터뜨린다
4월의 노래로
세상만물 활력을 찾는다

태양의 햇살아래
산과 들에 향기 넘치는 4월
태양의 사랑으로
신록이 솟구치는 약동의 계절

아- **김일성**주석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 4월
4월 있어 봄입니다
4월은 좋은 봄, 좋은 계절입니다

자애로운 태양을 우러르며
뜨겁게 인사드리는 4월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향해
온 겨레 물결쳐 설레이는 봄 명절

세 새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모시어
통일도 무궁도
다 안고 오는 4월
4월은 명절중의 명절입니다

민족최대의 태양절
온 행성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4월 명절, 봄 명절
지경, 국경 따로 없는
인류의 명절

흠모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세계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령도자

세네갈사회당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정치국 위원들이 최근 이 나라들을 방문한 조선노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진행하였다.

석상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이며 당대외관계전국비서 겸 대통령부 사무국장인 따노르 디앙은 조선노동당대표단의 세네갈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조선노동당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세네갈사회당의 영예이다.

앞으로 두 당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이며 국회제1부의장인 인라민 쟉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류가 지향하는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를 계속 굳건히 견지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한다.

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인 당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세계 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도자들이시다.

우리는 두 나라 당들 사이의 친선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두 당학교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가질 것을 희망한다.

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인 전국근로자연맹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 국제정세하에서 조선만이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견지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네갈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기니비사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정치국 위원인 당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니비사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은 조선노동당과 친선협조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

우리 당은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노동당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북대결적 ≪대북기본노선≫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한나라당이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해 내외 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는데요.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작성해 시행하려는 사실이 드러나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민중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먼저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정당인 한나라당이 작성한 ≪대북기본노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한나라당안에 조직되어 있는 국가혁신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되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문서를 꾸며냈어요. 주요 골자를 보면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극력 반대하며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까지 작성한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을 보면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느니 투명성이 보장되는 여건에서의 북의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죠. 남북관계는 남북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간의 관계인 남북관계문제는 곧 민족문제, 통일문제죠.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더욱이 민족공조의 대책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겠다는 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투명성이 보장되는 여건에서의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것도 못쓰는 식량과 물건을 무기로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북에 대해서 ***아닙니까.
사회자 : 이회창이 ≪선평화 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대북기본노선에는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북사이의 협력교류를 반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차단하려는 범죄적 기도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한나라당패거리와 같은 호전광들 때문입니다. 평화를 파괴하면서 그것이 보존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니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결국 그것은 남북공동선언을 뒤집는 망동이고 이산가족들의 상호방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미상전의 비위를 맞춰 신임을 얻어보려는 반역종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죠.
사회자 : 반역정당으로해서 비판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까지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국토개발계획≫은 본질상 선행 통치배들의 이북파괴책동의 재판이고 범죄행위라고 봐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버젓이 당의 노선으로 못박고 ≪국토개발계획≫과 같은 북침침략계획까지 꾸며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건 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하겠죠. 한나라당이 ≪국토개발계획≫까지 꾸며내려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북침통일의 개꿈이 ***라고 말할 수 있죠. 당 자체가 공중분해 될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자 :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건 철저히 반북대결적인 것으로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악결과가 자못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건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이북을 비롯한 7개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태세 검토보고서≫, 미국의 침략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전쟁선언이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열을 영구히 조장시키는 분열과 대결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이 꾸며낸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세부해 봤는데요. 이건 역대 통치배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극히 불순한 문제들이 수반돼 있어 언론과 사회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윤정원 :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금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비난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회여론은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의 제도에 대해 시비중상하며 ≪악의 축≫으로 줴친 망발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개탄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 ≪대북기본노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매국문서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합의서내용과도 전면 배치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첨예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죠. 재야인사 김모씨는 반북대결책동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못할 반통일적인 행위이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반북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회자 :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이 자행하고 있는 반북대결책동에 환멸을 느끼면서 이회창정계퇴진, 한나라당해체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윤정원 :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노는 꼬락서니를 보고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의 원수, 미국에 충실한 주구, 정치간상배인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악마의 소굴인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모교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이회창을 반대하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어요. 한총련소속 한 대학생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며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끌어내고 한나라당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여러 학우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한 주민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여기에 남북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키는 길이 있다며 이회창과 한나라당반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각계 민중은 지금이야말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반이회창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서 중단없이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을 작성해 시행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한나라당에 등을 돌려대고 있는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화제의 초점
주체91, 3월 31일

매국노의 악습

이조봉건통치시기의 일이다.

한 고을에 양반이라는 것을 뻗대고 푼수없이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판서대감의 집에 심부름을 갔는데 일을 다보고 나서 대감과 주안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주인과 손님이 모두 술을 잘해서 온종일 퍼마시고 몹시 취했다. 그때 대감의 애첩이 술심부름을 했다. 손님이라는 양반이 잔뜩 취한 김에 문득 여자의 손목을 덥썩 잡았다. 깜짝 놀란 여자가 손목을 빼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옷소매까지 찢어졌다. 그날 저녁 갈짓자 걸음으로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다음날 아침에야 지난밤 대감댁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감께 이처럼 무례한 짓을 하고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냥 벼슬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음날 대감을 찾아가 그만 사직하고 물러가겠다고 청했는데 대감은 술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너그러이 용서하며 또다시 술상을 차려오게 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모두 곤드레만드레해졌다. 그런데 손님이라는 양반은 술취한 김에 다시금 그 여자의 손목을 쥐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자 대감은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생이이다라고 말하면서 앙천대소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야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생이같은 푼수없는 얼간이가 있다. 한나라당의 총재라는 이회창이가 바로 그런 자이다.

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 못된 짓을 거듭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있다.

푼수없는 양반이 주색에 빠져 못할 짓을 거듭했다면 이회창은 대권욕에 환장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범죄를 거듭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이 지난 기간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들은 차치하고 올해에 있은 그의 이른바 해외나들이와 부시의 방한과정에 있은 일을 놓고 봐도 그렇다.

비단 지난 1월에 있은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적을 놓고 보자.

그는 올해 해외행각의 첫 목적지로 미국을 택했다. 민족민중을 반역하고 기만하는 범죄행위를 수많이 자행해 국민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가 지지를 받을 곳은 미국

(8면에 계속)

국제사회, 미국의 ≪핵태세검토≫ 규탄

최근 미국이 이북을 포함한 7개국에 대해서 핵무기사용을 계획했다는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접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지는 미국방부가 1월 8일 국회에 이북을 포함한 7개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핵태세 검토 비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부시행정부는 군부에 적어도 이북을 포함한 7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을 작성하며 일정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들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사용무기 등은 환히 알 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핵공격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21세기에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저들의 일극 세계화전략에 방해로 된다고 보는 나라들을 임의의 순간에 핵선제타격을 가하여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커다란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방부가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비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하면서 중국측은 보도내용에 커다란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한다고 강력히 언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의 국제문제위원장은 미국의 ≪핵테세 검토≫결정이 미국 자신에 있어서도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는 억제를 목적으로 한 장치가 있는 무기이며 적어도 건전한 사고능력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의 승리로 너무 우쭐렁되어 있지 않는가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차관은 미국을 비롯한 7개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워싱턴의 최신 비밀비상계획을 배격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군축과 핵확산금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은 유럽의 동맹국들 속에서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자기들을 위성국들로 보지말라고 워싱턴에 경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엔 군축문제담당 사무차장은 13일 미국의 핵무기사용시도가 세계적인 군축노력에 엄중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사용이 인도주의와 관련한 국제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민족회의 외교 및 아랍관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이 국제법과 협약들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유엔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국제운동체가 미국의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국회의원 로오스는 ≪로저 앤드 메일≫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핵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부시행정부가 핵무기를 전쟁수단으로 삼는 핵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그것은 국제법을 파괴할 뿐 아니라 미국이 동맹자들로부터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있는 핵무기전문가인 **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라는 비밀보고서가 끔찍하고 새로운 핵전쟁돌발사건의 싹이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세계협의회 회장 이사크는 부시행정부가 지금 핵참상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저들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핵무기사용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미국방부안에 전면 핵전쟁추진론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무기전문가인 시린 시유는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는 진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가 핵무기를 전쟁억제보다는 전쟁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 12일자는 부시행정부의 핵무기사용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미 국방부가 최근에 공개한 ≪핵태세 검토≫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대폭 확대한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규탄하면서 그 계획을 수정할 것을 미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만일 어떤 나라가 비핵국가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여 선제공격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당연히 위험한 불량배국가로 지목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방부의 ≪핵태세 검토≫에 의하면 그러한 나라는 바로 미국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신문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인터내셔널 ***≫를 비롯한 신문, 방송, 뷸레찐들이 부시행정부의 핵정책변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미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반 사실은 부시행정부의 핵미치광이들이 세계 제패야망을 위해 핵선제타격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한다면 국제사회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각계 국민들도 한반도에서 무모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 오늘의 연단
주체91, 3월 30일~31일

(7면에서 계속)

상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명줄을 건 그가 미국행각시 상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미국 호전광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경쟁자들을 헐뜯고 지지를 애걸했으며 내외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런가하면 주한미군이 전쟁억제력이라느니 세력균형이라느니 뭐니하며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제창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이회창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동족을 해치고 국민을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역시 마찬가지이다. 2월 19일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 땅에 도둑고양이처럼 날아들었다. 자기가 한 ≪악의 축≫ 망발로 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벌이는 아시아행각이였으니 서울에 와서도 환영을 위한 의전행사는 물론 도착성명 한마디 발표하지 못했다. 악의 제국 대통령의 가련한 행차라 하겠다.

반미반부시투쟁이 전례없이 거세게 벌어져 사실상 부시가 이 땅에 들어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감히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이회창과 같은 친미사대매국세력때문이다.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기 전부터 그의 대변인행세를 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이라는 등 부시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추파를 던졌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회창이 부시와 대화 한번 나누어보지 못하고 악수도 변변히 못했지만 상전을 모신 그것이 너무도 황송해서 삽살개처럼 따라다녀 보기 위해 안달복달한 것은 지금도 웃음거리로 남아있다.

그가 부시를 얼마나 할애비처럼 섬기며 비굴하게 놀았는가 하는 것은 북은 신뢰성이 없다고 한 부시의 망언을 그대로 외우다 못해 선물꾸레미를 안겨주기 위해 복닥소동을 피운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이회창은 친미사대매국에 미쳐도 더럽게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2월은 이회창에게 있어서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더욱 기승을 부린 달로 기록됐다.

이쯤되고 보면 좀 자중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어느 정도라도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인간의 건전한 사고일 것이다. 그 야화의 주인공이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사직을 제기한 것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전한 사고능력이 없는 이회창은 3월에 와서도 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이회창의 일본행각이다. 이회창은 국민의 분노한 눈길을 두려워하면서도 친일매국적인 본심은 감출 수 없는지라 3월 어느날 갑자기 일본으로 달려갔다. 그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아양을 떨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북을 걸고 들며 대량살상무기문제니 핵사찰이니 미사일문제니 하는 등의 망발을 마구 해댔다. 그리고는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마치

(9면에 계속)

또다시 버림 받은 일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일본이 미국 주도하에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지원하는데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는 건 세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반테러전쟁공헌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미국방부는 저들의 반테러전쟁을 지원한 26개 나라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 누구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최대의 열정을 보인 일본을 빼놓았습니다. 일본만큼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무조건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척의 자위대 함선과 수많은 병력을 인도양에 파견해 미국군함들의 병참지원을 준 나라가 없다는 건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군사외교부문 관계자들도 미국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일본만큼 미국에 충성을 보인 나라는 없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미국은 일본을 반테러공헌명단에 조차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써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금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항의를 들이대는 등 일대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자 미국은 실수라느니 사죄한다느니 뭐니 하며 일본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일본이 대미지원에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사실 일본이 대미지원에 그토록 열성을 보인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일본이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적극적인 열성을 보인데는 세계의 면전에서 군사대국, 정치대국의 지위를 시위하고 미국의 후원으로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유엔분담금을 지불하는데서 미국다음가는 두번째 몫을 맡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엔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평화유지작전비를 부담하는데서도 일본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자금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질은 없으면서도 돈이 있다는 것으로 하여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약삭빠른 일본의 투기적 처사는 걸프전쟁시에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1991년 걸프전쟁때 일본은 세계앞에 경제대국으로써의 위력을 시위하기 위해 미국의 전쟁비용지원으로 130억달러를 보란듯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느 동맹국보다도 가장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정치대국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직접 무력을 파견하여 군사적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회자 : 많은 돈을 내고도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일본으로써는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보상할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시작되자 군사적 공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에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선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년동안 벼르고 벼르던 해외파병법을 현 일본정부는 단 25일동안에 전지역적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와 함께 자위대의 무기사용권한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에서 그 어떤 간섭전쟁이나 군사행동에도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고 자위대 함선을 인도양에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지배층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지위를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끌어올리고 정치대국의 지위를 시위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자는 승산에서였죠.
사회자 :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대국의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을 지원하는데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미국이 유엔에서 일본을 밀어만 준다면 상임이사국의 관문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지난 2월 일본을 행각한 부시도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반테러전쟁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일본을 미국의 최대의 가장 성실한 벗이라고 추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던 미국이 반테러공헌명단에서 최대의 열성을 보인 일본을 빼놓았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특유의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부시가 일본을 추어올린 것은 아프간침략전쟁을 벌이는데서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자는 타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전쟁비용을 한껏 짜내고 위험한 전쟁마당에 총탄받이로 일본 자위대를 더 많이 끌어내자는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군사정치대국으로 되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자리를 차지하려는데 대해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면 미국의 도끼를 바꿔 쥐고 세계패권쟁탈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진주만에서 일본의 기습공격을 당한 역사적인 실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최대한 이용은 하되 경계하라≫ 이것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미국의 이용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미국방부가 발표한 반테러공헌명단에서 일본이 빠진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사회자 :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반테러공헌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진게 마치 상전인 미국의 눈밖에 나서 몸값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의 반테러전쟁확대정책과 ≪악의 축≫론을 동맹국들을 비롯해서 세계 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내에서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이를 지지협력하면서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자기 나라가 주동이 되어 추진해야 할 국제협상인 교토의정서에서 미국이 탈퇴한데 대해서도 격분은 고사하고 항의 한마디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국들이 격분해서 미국없이도 이 협정을 비준하고 실행하자고 들고 일어난데 대해 오히려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이 나라들을 설복하는 변호인임네 하면서 추대를 부리고 있죠. 오죽했으면 일본 야당들과 사회계가 미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절대복종, 비굴한 추종자세에 격분을 표시하고 있겠습니까.
사회자 : 제반 사실들은 지난날 우리 민족과 아시아민중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 인정, 보상조차 하지 않은 일본이 미국에 빌붙어서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팽창과 세계지배야망에 가슴이 부풀어오른 일본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과 세계민중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는 엄중한 실책으로 될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등에 업혀 계속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 비참한 참패를 면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은 물론 스스로 화를 몰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난날 저지른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고 해외침략야망을 즉각 중지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정치난쟁이 일본이 제아무리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꾀해도 그건 어림도 없다고 할겁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성하지도 청산하지도 않은 일본이 감히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자리를 넘겨다본다니 그건 말도 안된다고 하겠죠.

구국의 소리 - 오늘의 연단
주체91, 3월 30일~31일

(8면에서 계속)

북에 있는듯이 헛나발을 불었고 존엄높은 북의 정치체제까지 걸고드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본상전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 일본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의 역겨운 아첨도 주저하지 않았다. 개는 먹이만 주면 누구나 주인으로 따르기 마련이라고 일본의 손때 묻은 친일주구인 이회창이 민족민중을 반역하는 언동을 거리낌없이 하며 일본을 주인처럼 따르는 것은 어찌보면 달리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일찍이 친일역적인 애비로부터 친일교육을 받으면서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것을 일상생활로 여겨온 이회창이 오래간만에 옛상전의 나라에 왔으니 감회도 깊어 속생각을 터놓았겠지만 그럴수록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끼칠 해악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이다. 더욱이 대북주의자들의 고립압살모략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북에 대해 험담하며 미국의 졸개노릇을 하는 일본에 아부아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친일역적행위이다. 그가 얼마나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하고 민족반역행위에 혈안이 되었으면 내륙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고이즈미를 찾아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한일양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망언도 거리낌없이 했겠는가. 확실히 이회창은 이 땅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매국역적 중의 역적이다.

술주정뱅이이고 **쟁이인 야화의 양반이 오늘의 이회창을 보았다면 개인의 악습에서 벗어나 정치인의 감투를 쓰고 초보적인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여기저기 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쓸개빠진 소리를 하고 비굴한 작태를 부리는 그에게 자기는 그래도 역적질은 하지 않았다고 분개하면서 이회창의 뺨을 쳤을 것이다.

이회창과 같은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 더 한 미일의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은 물론이고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의 재난을 당할 수 있다. 매국역적의 제거는 빠를수록 유익하다. 각계 민중은 극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로 대권욕을 채우고 민족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의 재난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을 축출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 오늘의 연단
주체91, 3월 27일~29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31일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20돐 기념 중앙보고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2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는 보고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주체71(1982)년 3월 31일에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며 조선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력사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선행리론의 공적과 력사적제한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력사적지위와 견인력을 강화하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보고자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로작에는 **김정일**령도자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탐구력이 집약되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시였으며 사람의 본질적특성문제에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시였다.

로작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라는 주체사관의 근본원리가 밝혀 지고 온갖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것이 론증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여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지도적원칙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로정이였으며 비범한 령도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력사의 역풍을 맞받아 나가시며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로 현명하게 이끄시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자주화위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승리의 년대기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 규탄 사회민주당 대변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반통일선언인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을 꾸며 낸것과 관련하여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은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전쟁선언이며 이 로선에는 우리의 체제를 감히 해쳐 보려는 흉심과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고 북에까지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연장해 보려는 망상이 담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힘으로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부쉬의 충견이 되여 살길을 열어 보려는것이 리회창과 ≪한나라당≫의 흉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민족적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제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의 하수인이 되여 대결과 전쟁을 몰아 오기 위한 범죄의 길로 공공연히 줄달음치고 있는 ≪한나라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리회창역도와 ≪한나라당≫의 더러운 명줄을 하루빨리 끊어 버리고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신문들 주체사상에 관한 로작 발표 20돐을 기념

31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20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이 로작은 자주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들이 집대성된 혁명의 대강이며 불멸의 총서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론증하신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주체사상의 생활력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에 대한 사상리론,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사상리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비롯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들에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안목이 비껴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자주시대의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위력 떨치고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정책이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는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있다.

주체사상을 틀어 쥐고 사상리론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투쟁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아 졌다. 지난 20년간의 우리의 경험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한 천하지대본이며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여 있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천하지대본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강성대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는것이 조선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선군정치로 민족의 자주권 지켜 나갈것 민주조선

≪민주조선≫ 31일부는 부쉬정권은 조미사이에 진행되던 여러갈래의 협상과 접촉을 차단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 엎었으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훼방을 놀면서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지금 부쉬호전집단의 모험적인 대북압살로선과 북침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한점에 달하였으며 새 전쟁발발의 위험은 갈수록 짙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원치 않는다. 더우기 한피줄을 나눈 북과 남의 우리 겨레끼리 서로 싸울 조건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평화애호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오면서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우리의 혁명적립장이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 근본요인이며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는 기본화근이다. 미제의 전쟁책동과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계속적인 강점을 허용한다면 우리 조국땅에서 또다시 새 전쟁의 불길이 타번지게 될것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조국의 전도는 위태롭게 될것이다.

우리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펼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새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전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라는것이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것이며 침략자들에게 드세찬 공격과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기 위한것이다.

미제 공중정탐행위 3월에 150여차 북침공중전쟁연습도 감행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미제가 3월에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150여차의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29일 남조선강점 미공군기지로부터 리륙한 ≪U－2≫고공전략정찰기가 남조선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물에 대한 정탐행위를 하였다. 이보다 앞서 14일과 19일 해외기지로부터 출동한 ≪E－3≫지휘기가 남조선상공에서 공중전투와 지상목표타격연습에 돌아 치는 미제침략군전투기들을 지휘하면서 군사분계선 우리측 대상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하였다. 한편 미제는 최전연지역상공을 포함한 남조선전지역 상공에서 북침공중전쟁연습을 벌리였다.

특히 미제는 21일부터 27일까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합동전쟁연습시 남조선지역상공에 매일 120여대의 전투기들을, 합동전쟁연습의 절정단계인 26일과 27일에는 180여대의 전투기들을 출동시켰다.

이 모든 공중정탐행위와 공중전쟁연습소동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타격≫대상으로 점 찍어 놓고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거에 ≪점령≫하려 하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로동신문 정론 주체91, 3월 22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백두산민족의 고귀한 정신, 혁명적락관주의가 시대를 울리고 있다.

우러를수록 숭엄한 격정을 금할수 없다.

비바람, 눈바람이 모질게 불어 쳐도 불굴의 한모습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거연히 서시여 끊임 없는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 나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어려운 세월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그이의 모습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혁명가, 가장 강의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위업이 얼마나 성스럽고도 간고한것이며 오늘의 진군길을 억세게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심장이 무엇으로 고동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하나의 가슴치는 화폭을 여기에 펼친다.

지난 2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류다른 추억으로 걸어 온 길을 감회깊이 더듬으시며 지난 7년간 나는 선군정치를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고 절절한 말씀을 주시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 줘도 몰라 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이 노래, 한번 부르시고는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부르시고는 또 뜨거운 말씀을 이으시기를 그 몇번, 장군님을 따라 노래를 부르는 전사들의 가슴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격정으로 들먹이였다.

평범하게 불리워 오던 이 노래가 어찌하여 이다지도 강렬한 충격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적셔 주는가.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의 선군 7년을 추억하시면서 부디 이 노래를 부르시였으며 어찌하여 가야 할 먼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또다시 이 노래를 그리도 애착깊이 부르신것인가.

저 멀리 흘러 간 7년의 해와 달, 날과 날의 천만가지 사연이 이 한편의 노래의 선률속에 실려 온다.

얼마나 겪으신 고생이 크시였으면 이 노래를 몇번이나 부르셨으랴.

그 누가 몰라 준대도 희망 안고 찬바람, 눈서리를 헤쳐 온 그 길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 열어 오신 피어린 ≪고난의 행군≫길, 선군령도의 7년 길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어 서야 했던 그 나날, 제국주의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조국을 수호하여 선군의 길에 나서야 했던 7년,

어려운 경제난, 모진 추위와 굶주림, 별의별 생활고를 겪을대로 다 겪은 그 참담한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 넘었던가.

희망이였다.

그것은 오늘은 비록 추위에 떨고 기아에 허기지고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남 모르는 피눈물도 삼켜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 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 드팀 없는 확신과 열망이였다.

찬바람 불어도 가야 했다.

그 누가 몰라도 우리만은 가야 했다.

민족이 영영 쓰러져 일어 나지 못할수도 있는 천길막바지에서 우리를 일으켜세운것은 앞날에 대한 믿음이였고 때로는 고난의 이 길이 영원히 계속될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마당에서도 견인불발하여 돌진할수 있은것도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적들은 우리의 패배가 눈앞에 왔다고 손벽을 쳤고 온 세계가 우려와 동정의 시선을 던졌다.

그 누구도 우리를 리해할수 없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몰랐다.

그러나 오직 한분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압살의 광풍이 불어 치든, 피눈물의 바다가 앞을 가로 막든 추호의 흔들림없이 력사의 숫눈길우에 진격의 큰 자욱을 줄기차게 찍어 가시였다.

참으로 용감하시고 견결하신 위대한 력사의 주인공이시였다.

그래서 그이에게는 이런 비장한 마음속 고뇌를 터놓을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했다.

고난 많은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를 더듬어 보면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마당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 놓은 잊지 못할 노래들이 있었다.

백두산에서 피로써 첫 걸음을 내디딘 조선혁명의 명맥이 영영 끊어 지는가, 아니면 다시 이어 지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던 천교령의 눈보라길, 그 길에서 울리였던 ≪반일전가≫를 잊을수 없다.

흐려 지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이 우리를 지켜 본다고 용기를 내여 일어 서야 한다고 하시며 몇명의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부르고 부르신 이 노래와 함께 조국광복의 진군길이 열리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7년세월 수없이 부르시며 힘과 용기를 얻으신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여기에서 울리는 위대한 백두산장군의 심금의 선률이 천만병사들과 인민의 가슴을 친다.

일곱해의 한해한해, 전선길의 굽이굽이가 끝없이 말해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노래가 울렸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때에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진달래 붉게 핀 철령의 수십리 령길을 넘으시면서도,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험준한 오성산의 칼벼랑고지길을 달리시면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였으리라.

심신을 더욱 억세게 가다듬으시면서 저 백두산의 눈보라 10리길을 걸으시고 희망찬 래일을 그려 보시며 강계의 6천여리 강행군길을 걸으시면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시였으리라.

전선을 찾아 달리던 령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느 날 일군들로부터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에 대한 가슴 아픈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으시였다.

나라의 식량난으로 하여 절량가들이 생겨 나고 공장들이 하나둘 숨이 죽어 간다는 사실앞에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고, 인민들은 꼭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백배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시며 야전차에 올라 전선으로 달리시였다.

고난을 겪는 인민을 뒤에 두시고 전선으로 달리시는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안에서는 노래가 울렸다.

그것은 바로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고생하는 인민에 대한 가슴 아픈 괴로움을 이겨 내시였으며 바로 이 노래의 구절을 자신에 대한 신성한 혁명의 부름으로 외우시면서 선군길을 가고 또 가시였다.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용감하게 하는 무한한 힘의 샘줄기이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라는 말이 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진 인간은 죽음의 천길나락속에서도 다시 솟구쳐 일어날수 있지만 래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인간은 평탄한 길도 제대로 걸어 나갈수 없다.

희망,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정신적자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저려 나는 고난의 7년은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앞날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안고 영웅적으로 돌파한 위대한 락관주의의 불멸의 서사시로 빛나고 있다.

사연 깊은 구월산의 2단폭포옹벽에 병사들이 써놓은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그 글발을 두고 우리 장군님께서 왜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였던가.

시련과 곤난이 아무리 모질어도 굴함없이 앞으로 나가는 우리 장군님의 그 불굴의 혁명정신을 우리 병사들이 심장의 피로 그대로 새겨 놓았기때문이였다.

노래는 그 모든 사연을 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힘이 드시고 마음이 괴로우실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을 끓이시면서 바로 이 노래와 함께 말 없는 심장의 말을 수없이 나누시였다. 이 노래는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연설≫과 같았다.

이 노래는 온갖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에 묻으시고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선군혁명전선길을 쉼없이 가고 또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마음의 기둥이였고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였다.

참말로 위대한 희망은 의지의 강자만이 가질수 있다.

은은한 선률과 함께 인간의 의지력이 절절하게 가슴에 파고 드는 이 노래를 듣느라면 우리 장군님의 비상한 의지의 세계앞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희망은 래일의 포부와 목표라면 의지력은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추동력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희망을 가졌다고 해도 의지가 약하면 그것을 실현할수 없다.

혁명의 령도자는 조국과 민족의 앞날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빛내여 나갈수 있는 불굴의 정신력을 지녀야 한다.

백두산민족의 승리의 력사는 바로 그렇게 흘러 왔다.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안으시고 ≪지원≫의 사상으로 력사의 새벽길을 개척하신 김형직선생님, ≪ㅌ.ㄷ≫의 원대한 기치를 높이 드시고 억천만번 쓰러져도 원쑤를 치자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붉은기의 한생을 살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선군 7년은 력사가 일찌기 보지 못했던 초인간적인 신념의 강자, 의지의 명장이 어느분이신가를 세계에 과시한 영웅적인 나날이였다.

걸어 온 선군의 길은 참으로 보통의 신념과 의지로써는 헤칠수 없는 길이였다.

찬바람 부는 길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길이였고 그 누가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제국주의와 포성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폭풍치는 길, 피어린 계급투쟁의 길이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병사들과 인민들의 구호이기전에 자신의 삶과 투쟁의 신조로 삼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시였다.

뜨거운 눈물없이 더듬을수 없다.

얼마나 불사신마냥 온몸을 부시며 나서시였으면 우리 장군님의 7년은 멀고 바람세찬 전선에서 흘러 갔겠는가.

얼마나 결사의 의지로 이 길에 나서시였으면 우리 장군님의 생활은 보통의 인간생활이 아니라 전시에나 볼수 있는 ≪야전식≫, ≪빨찌산식≫으로 체질화, 습관화되시였겠는가.

아마도 세상에는 이런 전설적인 의지의 인간력사를 기록한적 없으리라.

현 시기 세계의 명망 있는 정치가들을 소개한 외국의 어느 한 책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강의한 의지력의 소유자이다. 그이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저항에 부닥쳐어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씌여 져 있다.

세계는 커다란 놀라움과 경탄을 가지고 백두산장군의 신념의 정치, 의지의 정치인 조선의 선군정치를 지켜 보았다.

민족의 존엄과 인류의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였기에 혁명의 전구에 한몸을 내대시고 결사의 전선길을 기꺼이 택하신 우리 장군님,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그처럼 무거운 짐을 걸머지시고 그처럼 가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 죽었던 조국을 다시 안아 일으켜 세워 주신 강철의 위인, 신념의 구세주를 력사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눈시울 적신다.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버이장군님의 선군혁명 7년이 생각나고 장군님의 만고풍상을 우러르면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한다.

(13면에 계속)

고난의 행군, 강행군 승리의 비결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7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주체91, 3월 31일

오늘 온겨레와 전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승리의 비결에 대한 그런 정확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은 우리 공화국이 역사상 최악의 시련을 선군정치로 이겨내면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을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놓은 6년이었고 적들의 봉쇄와 압력을 걸음마다 짓부셔놓은 6년이였으며 민족분열의 장벽에 분화구를 터친 6년이였습니다. 참으로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무너졌을 준엄한 환경속에서 창조된 이 역사의 기적 앞에서 우리 인민과 전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절감하면서 이에 끝없이 매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선군 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위업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합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입니다. 힘으로 맞서는 제국주의를 힘으로 제압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자면 무엇보다도 군력이 강해야 합니다. 군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노골화되었던 조건에서 사회주의 운명의 사활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이 붕괴된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압력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습니다. 조성된 사태는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 인민이 되겠는가 하는 심각하고도 운명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최고 이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적들의 군사적 도발과 압력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가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지니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결사전을 진두에서 조직영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열쇠가 바로 군력 강화에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주체83, 1994년 7월부터 주체89, 2000년 말까지만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75차에 걸쳐 560개의 단위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노정은 무려 14만 5천8백여리나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로 자라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 넘치는 사상의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이런 정예무력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속에서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보루를 수호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정치사상적 군사외교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가장 엄혹한 난관과 시련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세상에 떨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다음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데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비단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만 위력한 것이 아닙니다. 선군정치의 위력은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데서도 발휘되였습니다. 한때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 부의 소비자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군대가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경제건설의 평화적 조건도 보장될 수 있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주력군, 돌격대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운 과제도 해제끼고 인민들의 영웅적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된다. 이런 관점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강성대국 건설의 제1기둥을 내세우셨을 뿐아니라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건설의 제일 어렵고 관건적인 전선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온사회에 일반화하여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들고 강성대국 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해서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는데서 혁명의 보위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하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투쟁기풍이 전인민적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여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가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군영도가 두차례의 가장 혹심한 파괴속에서 우리나라를 소생시켰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가장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땅위에 강성대국 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군 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또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최상의 경지에로 올려세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나라의 지위이며 무게입니다. 세계적 지위가 높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처신하고 행동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남에게 빌붙고 눈치를 보게됩니다.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작은 나라일수록 더욱 귀중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한 강권정책으로 해서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워도 어디가서 하소할 곳도 없는 때인만큼 작은 나라일수록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높이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놈들의 콧대를 꺽어놓으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선군정치로 자주성을 지향해 나가는 나라와 정당 인사들 속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 흐름으로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수리야 군대 및 무장력 부총참모장은 수리야가 이스라엘놈들한테 빼앗긴 땅을 되찾고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군사를 국사중에 국사로 내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본받아 군중시로 나가는 것은 오늘날 국제적인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도상 나라들은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을 자기 나라에 구현하여 경제중시 정책으로부터 군사중시 정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선군정치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뿌찐 대통령은 이전 소련과 러시아 역사에서 국가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는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던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세기 첫해에는 유럽동맹최고위급대표단까지 우리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야 말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최상의 경지로 올려세운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세상에 빛내여준 그런 사회주의 수호의 위력한 무기, 민족의 운명개척의 필승의 정치보검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이제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한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를 받들고 피눈물의 대하도 헤쳐왔고 시련과 난관의 험로역경도 넘어왔고 제국주의의 고립압살도 짓부셔버렸으니 우리 인민은 백배, 천배로 강해졌고 우리 공화국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아래 강철처럼 군세어 지고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은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21세기를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의 세기로 반드시 빛내일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모두 37번에 나누어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대경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주노총 ≪발전노조 해결안되면 무기한 총파업≫

발전노조 파업 36일째를 맞는 4월 1일, 정부는 발전파업의 원만한 해결이 없으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와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노조들은 오는 2일 진행될 총파업을 위한 계획과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등 항공산업 5사 노동조합은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 철회와 발전노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항공5사노조 공동쟁의 대책기구는 전체 간부회를 통해 정부가 발전노조 파업을 해결할 때까지 전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노조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노조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기간 산업 해외매각, 사유화 방침 철회 ▲발전노조와의 협상 재개 ▲이미 해고한 3백 42명 조합원의 범위 재조정 ▲4천여명에 이르는 미복귀 조합원에 대한 전원 해고 방침 철회 ▲파업을 종료한 철도와 가스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할 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대해 ≪정부는 지난 95년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정부가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한 이후 경찰청장이 사직하는 등 국민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을 상기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만약 경찰을 투입, 집행부들을 구속하게 되면 민주노총은 현재 예정된 파업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파업이 강행할 것이며, 회사에 복귀한 발전 노조원들이 다시 파업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항공노조는 이어 ≪정부가 발전노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내면, 우리는 언제든 파업

을 그만둘 것≫이라며 정부의 성실한 교섭 의지를 다시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날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전소 매각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 교섭 재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2일부터 산하 1백 50개 지부가 연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발전소 매각반대와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자전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발전소 매각의 부당성을 적은 몸벽보를 부착하고 여의도 공원에서 출발, 국회를 거쳐 여의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출발지인 여의도 공원에서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여 1시간 가량 마찰을 빚었다.

연맹측은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시위를 왜 막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측은 ≪신고시 자전거 행진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것은 불법 차량 시위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막았다.

연맹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불법이라면 자전거를 타지 않고 가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경찰은 이들이 몸에 부착한 ≪국가기간 산업 매각 반대≫라는 몸벽보가 시위적 성격을 띠게 되니 몸벽보 부착도 허가할 수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맹측은 ≪집회신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입구를 봉쇄하면서 자전거는 불법이라 허가할 수 없고, 몸벽보도 시위성이라 허가 할 수 없다니,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1시간여의 마찰 후 노조원들은 개별적으로 여의도공원을 빠져나가, 대한생명 쪽으로행진 방향을 돌려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일 총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A등급을 회복, 경제대도약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파업을 하게되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희망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총파업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정부와 노조는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총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면, 이 책임은 원칙론적인 강경대응 방침만을 되풀이하며 무대응.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타협의 정신을 잊은 채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만 열중하는 노조 양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하 노조들은 ≪민영화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방침을 바꾸고 노조측에 민영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정부가 타협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세옥 기자
2002/04/01 시민의 신문

(11면에서 계속)

그렇다.

그 누가 몰라 줘도 병사들과 인민만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리해했으며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총폭탄신념으로 결사받들어 왔다.

준엄한 고난의 나날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병사들과 인민들사이에 더욱 혈연적으로 굳게 맺어 진 그 눈물겨운 혼연일체의 뜨거운 세계를 이 한편의 노래가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희망이 우리를 고무하고 있다.

7년세월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용암처럼 끓어 불 타고 푸르른 소나무처럼 싱싱하게 향기 뿌렸던 희망은 이 세상 가장 숭고하고 찬란한 희망이다.

시련의 언덕을 넘고 넘어 새 세기 진군길에 오른 오늘 우리는 이 노래에 울리는 그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오한 대답을 찾게 된다.

피눈물언덕에서 불사신처럼 일어 서던 그때 장군님마음속에 회오리친것은 무엇이였고 숨 죽은 공장을 뒤에 두고 전선길을 달리실 때 우리 장군님 외우고 또 외우신 미래에 대한 갈망은 무엇이였던가.

강성대국, 바로 그것이였다.

남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계의 당당한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한다는 바로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이 가도 해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만 불 타오르는 우리 장군님의 희망이다.

선군, 바로 여기에 가장 위대한 희망이 있었다.

래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공장이나 살리고 쌀독이나 채우는데 급급했다면 오늘과 같은 강성대국이라는 크나큰 목표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는 일시적인 향락이 아니라 보다 웅대하고 영원한 번영을 안아 올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준엄한 투쟁과 래일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참으로 가슴 뜨거운 말씀을 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지금 나라에 전기가 모자라서 비록 거리는 새까말 때도 있지만 극장에서는 공연도 하고 처녀총각들은 산보도 한다고 하시면서 비록 자본주의나라의 번화가들이 화려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이께서는 자본주의는 래일이 없다, 우리는 희망찬 래일을 안고 산다, 오늘은 좀 남 보다 못할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다, 우리 인민은 순간의 번화가가 아니라 영원한 번화가를 창조하고 있다고 힘 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에 얼마나 뜻 깊은 진리가 담겨 져 있는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번창하고 현란하다해도 물질중심,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인격이 담보될수 없다. 희망 없는 오늘의 향락뒤에 래일의 절망이 있다.

앞날은 어떻게 되든 오늘만 쾌락을 누리면 그만이라는 동물적인생관이 사람들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래일이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고난의 천리뒤에 행복의 만리가 펼쳐 지고 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오늘의 간고한 투쟁끝에 반드시 희망찬 승리의 미래가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산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란 강성대국의 승리를 선언하는 21세기 승리의 북소리, 승리의 화창한 봄임을 우리는 당당히 말한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불 타는 봄, 그것은 번영하는 조선의 미래를 안아 오는 희망의 봄이다.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땅우엔 따스한 봄이 왔어도 우리의 마음속엔 투쟁의 눈보라가 더 세차게 불어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했지만 또다시 신들메를 든든히 조이고 준엄한 투쟁의 길을 달려 나가야 한다.

우리 세대는 오늘에 사는 세대가 아니라 래일에 사는 세대, 창조와 투쟁의 피땀을 바치고 미래를 위한 행복의 나무를 심는 세대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가는 혁명적 락관주의자가 되자는것이 우리 인민의 지향이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는 오늘 우리 장군님세대의 가장 고귀한 삶의 노래, 숭고한 인생관의 노래이다.

저 멀리 세기의 지평선우에 밝아 오는 백두산나라의 미래의 모습은 피와 땀을 깡그리 바치고 죽음도 각오하고 싸워 안아 올만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미래이다.

래일에 대한 가슴 부푸는 열망을 안으시고 오늘도 전선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걸음걸음을 충성으로 받들자.

오늘날 미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우리 장군님의 봄을 먼저 알리는 충성의 꽃이 되는 사람들이다.

백두산민족은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쳤다.

그 누가 가로 막으며 훼방질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자기의 갈 길을 간다.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가는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우리 인민은 기어이 존엄과 행복을 만대에 누려 가는 강성대국민족으로 눈 부시게 솟아 오를것이다.

한미 당국의 LPP 협정 체결은 국민 기만

한미 당국은 3월 29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였다.

LPP는 남한 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남한 내 미군기지를 권역별 중심기지로, 용산 미군기지를 전략사령부로 자리매김 하려는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번 협정 결과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우리는 춘천, 부산, 부평, 원주, 군산 등의 일부 기지를 비롯하여 4천 백만평의 공여지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미국 측의 요구가 중심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국민적 현안이자 즉각적으로 폐쇄되어야 마땅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은 이번에 반드시 반환이 명시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이 반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번 협정이 철저히 미군 이해 위주로 체결된 기만적인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수도 서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국가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울시의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숨통을 죄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협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제외되었다. 이는 작년 12월초부터 계속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아파트 건립 반대 투쟁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군 당국이 이번 LPP 협정 체결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문화하겠다고 한 합의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이번 LPP 협정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 공여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LPP 협정에서 주한미군에 154만 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작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75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합의했던 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으로, 이번 LPP 협정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추가 공여에 의한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은 그 대상 지역인 의정부, 평택, 오산, 포항, 부산, 칠곡, 이천, 온산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이번 LPP 협정은 미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의 고통을 떠 안겼다. 이번 반환되는 공여지는 대부분 훈련장으로, 미군의 폭격연습과 기름 유출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땅들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오염된 기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천문학적 액수의 복구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 LPP 협정은 이전비용의 절반을 한국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번 협정에서 이전비용 3조3천억 원(24억 달러) 가운데 1조8천400억 원(13억8천만 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 원(10억9천만 달러)은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향후 10년에 걸쳐 개괄적인 연도만 밝힘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처럼 언제든지 미국 멋대로 유야무야될 수 있고 앞으로 한층 더 개악될 소지도 크다.

이와 같이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의 오만과 한국 국방부의 대미굴종이 낳은 매우 기만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협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인 LPP 협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환경 오염된 공여지 원상 복구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김종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준) 공동집행위원장
2002/04/01 통일뉴스

F-15K 선정, 67%가 반대

차기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정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여론과 저항이 거세다. ≪한겨레≫가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4%가 F-15K기 선정을 ≪잘못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다수의 국민이 F-15K 선정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 차기 전투기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조작 압력≫이 제기되는 등 온갖 의혹과 논란이 계속돼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주말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군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등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채 차기 전투기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평가기준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도 평가기준을 미국 보잉사의 F-15K에 유리하도록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행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차기 전투기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을 가려야 한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어제 요청했다. 이 협의회는 현행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제≫에 따라 이처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에서 이처럼 F-15K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에 국회와 감사원이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회는 다수의 국민이 F-15K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선정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평가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통일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중인, 차기 전투기 사업 등 대형 전력증강 사업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2002/04/01 인터넷 한겨레 사설

클린턴, 부시 행정부 對北 정책 이례적 비판

빌 클린턴 전(前) 미국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대(對) 북한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클린턴 대통령은 1일 발간된 뉴스위크 8일자 최신호에 실린 실린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노선을 바꿔 한국정부의 희망대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4년 우리는 거의 전면전의 위기까지 치달았으나 나는 어느 누구도 위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용인할 수 없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유보했다.

미국 전직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험담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클린턴의 이런 비판은 이례적이다.

클린턴도 이날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의 국내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유보했으며 대(對)테러전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 입장을 고수했다.

강일중 특파원
2002/04/01 연합뉴스

≪70년대 전향공작 기관개입 물증확보≫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기 위해 실시된 ≪전향공작≫에 중앙정보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1978년 당시 법무부 예규를 입수,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향공작을 교사 묵인했음을 입증하는 법무부 공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전향공작 과정 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교도소 기록에는 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 및 폭행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당시 전향공작의 실체를 입증하는 희생자들의 교도소 내 기록과 법무부의 공문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진상규명위에서 조사 중인 비전향 장기수 관련 의문사는 지난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융서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김남권 기자
2002/04/01 연합뉴스

일국일당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5권에서 일국일당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었다.

≪우리의 당건설사업은 처음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진척되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특수한 사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을 가지기 위한 투쟁노정에서 남달리 비싼 대가를 치르며 남이 곧추 가는 길을 멀리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고심참담한 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우리는 식민지 나라의 항쟁투사들이 당을 창건하는데서 일반적으로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난관과 함께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였던 특수한 조건으로 하여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시련과 고충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당은 1928년에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것을 재조직할 것을 지령하였으며 1국1당제 원칙에 따라 만주와 일본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재국의 당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세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다른 나라 당에 들어가 좋은 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수동적인 길을 택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적인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에 역행하여 주재국의 당에 당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동안 종전대로의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타성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죄다 주저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당에 적을 임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인 동시에 계급적인 연대를 전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인 것만큼 그 운동을 담당한 투사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일시 다른 나라의 당조직에 망라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상할 것이 없다.

국제당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가있던 여러 나라의 적지 않은 공산당 지도자들과 정치망명객들은 자기 나라의 당적은 당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쏘련공산당조직에 임시로 이름을 등록하고 당생활을 하였다.

문제는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모체조직을 거세해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차스러운 곁방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처지에 떨어지게 한데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처사를 온당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엇나가거나 운동 그 자체를 줴버리는 것과 같은 자포자기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제당이 취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체의 주동적 노력으로 새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다.

우선 국제당에서 내놓은 원칙이 용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방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당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추진시켜나갔다. ≪ㅌ.ㄷ≫의 전위투사들을 망라한 건설동지사의 조직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담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과 성격에 대한 것이였다.

박달은 나에게 좀 외람된 질문을 한가지 하였는데 나무라지 말라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국내혁명가들 속에서는 **김일성**장군은 조선사람이지만 중국혁명을 하는 사람이고 **김일성**부대는 조선사람들로 꾸려진 부대이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라는 말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장군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순에게서 듣던 바대로 박달은 역시 매우 솔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박달을 위해 비교적 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판보도계가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가리켜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라고도 칭하고 있는 것만큼 국내혁명가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완전한 중국군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은 명칭 그대로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는 각종 항일유격부대의 연합군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공산당 계열의 중국인 유격부대, 구국군 계열의 중국인 반일부대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휘하는 조선인 항일유격대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것은 반일항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결속된 일종의 국제적인 연합군이다.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 자기 조국의 해방이라는 같은 목적, 동북이라는 동일한 투쟁무대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의 감정과 공통한 처지, 이러한 것들이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의 무장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무력연합을 실현하게 하였다. 연군체계는 어디까지나 자원성의 산물인만큼 항일연군은 각 민족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연군의 간판을 떼고 중국혁명을 도와주면서도 조국해방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민족군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조선혁명에 주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창건초기부터 자기 조국의 해방과 자기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조선의 민족군대라는 것은 만주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다

➡

광고

구국전선 제473호
주체91년 4월 1일

주체사상 학습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세기와 더불어>> (제26회)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절세의 위인 /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의 향도이념
절세의 위인상
명언해설 <<사상과 뜻이 높으면 인품도 높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 선군정치에 조국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은 애국애족의 위업이라 하시며 / 조국통일의 위대한 대강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제4회)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미국전투기, 누구에게 필요한가 /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몰아내자
외세의존은 반민족행위 /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들에겐 앞길이 없다
일생을 빛나게 살자 / 노래 – 또라이 부시, Fucking U.S.A
평양소식
평양대축제장 / 소개기사 – 만수대대기념비
춘추세론 – 민족대단합의 장이 될 <<아리랑>>축제
노래 –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한민전 최근소식
한민전 대변인 성명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한민전대변인 담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주체62(1973)년 6월25일]

조국통일의 위대한 대강

알고 있다. 우리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말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1국1당제 원칙을 코에 걸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대해 시비하면서 우리 민족군의 독자성과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 후 국제당은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 것이 1국1당제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항일연군에서 갈라져나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라는 조언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였다. 따로 세간을 내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의 지지가 약화될 수 있었고 우리의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었다. 연군을 민족별로 가르는데 대해서는 중국사람들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연군체계는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중 두 나라 전우들간의 혈연적 유대의 산물로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의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자주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또 중국사람들이 싫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몽골민족군대나 쏘련군대와도 항일연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우고 싶다.

박달은 나의 설명을 다 듣고나서 방안이 환해지게 미소를 지었다.

≪아참, 그런걸 우리는 괜히 낙망했댔습니다. 김장군빨찌산이 중국군 소속의 군대라면 기대를 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용기가 백배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해서는 신심을 가져도 됩니다. 일본군은 강군이긴 하지만 결코 무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산을 거점으로 조선국내에로 광복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국해방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박달동무가 지도하는 갑산공작위원회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민중의 총의에 의하여 건설된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다음은 ≪현대조선역사≫에 수록된 내용이다.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에 관한 방침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는 남조선에서 강압적으로 실시된 단독선거의 무효를 선언한 다음 전조선적인 선거를 실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중앙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남북조선 전지역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48년 8월 25일 온 민족의 비등한 열의와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반부지역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유권자의 99.97%가 참가하여 98.49%의 찬성투표로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지역에 모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에서 선거가 벌어지자 미군정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은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비상경계태세를 선포하고 미군기동부대를 38선전연(전방)으로부터 제주도 끝까지 배치했으며 반동경찰과 테러단들을 총동원하여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인민들이 서명투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높은 애국적 열의와 구국항쟁의 투지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유권자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이 선거에 참가하여 1,080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피선된 대표자들은 북반부지역인 해주에 들어와서 8월 21-26일 사이에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여기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남조선인구 5만명에 1명 비례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 선거하였다.

. . .

역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남북조선에서 선거된 572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은 첫째,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의 동원,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인 소미 양국군대의 동시철거의 실현 둘째,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법적 처벌, 반동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괴책동의 폭로분쇄 셋째, 일제 및 남조선정부의 법령들의 무효 선포,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의 실시 넷째,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 다섯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공고발전과 남조선지역에서의 그 복구 일곱째,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적 관계의 설정 여덟째, 조국의 보위와 민주개혁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주권으로서 항일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이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편집국 보도 67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3)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이남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제금의 액수가 거창한데서 세상사람들은 물론 이북의 간부들까지도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한동포들 구원하는 일인데 구호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해두었던 것을 남조선동포들을 구제하는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민족이 제일입니다.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녕 이 사랑의 구호조치는 높이 쌓아진 분렬의 장벽을 넘어 남녘겨레에게 혈육의 정을 안겨주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고결한 인간애, 동포애의 숭고한 결정체였다.

그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께서는 이남수재민들에게 엄청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신 **김정일**령도자의 동포애적의리와 통일 큰 도량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줄때마다 나는 그의 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끼군합니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준 것만 보아도 얼마나 통이 크게 설계하고 조직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는 량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여도 미국이나 일본이 남조선에 준 구제금과 대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동포애의 정이 담긴 방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정성을 담아 적시에 보내도록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은 나라가 분렬되여 40년만에 처음으로 분계선을 넘어가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격동적인 사변입니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람의 힘을 분계선도 감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은 한피를 나눈 동포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인데 거기에는 한점의 티도 없어야 합니다. 알알이 고르고 오리오리 다듬어서 보내야 마음을 놓겠습니다.≫

9월 28일 구호물자를 실은 수백대의 화물자동차와 대형짐배들이 꽃물결 설레이는 거리와 부두에서 이북민중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륙로로는 판문점을 통해 남녘으로, 해상으로는 인천, 북평으로 실려갔다.

근 40년동안의 국토분단이래 처음으로 구호물자와 더불어 혈육의 정이 북에서 남으로 굽이쳐가는 환희와 격동의 대화폭이 펼쳐졌다.

사랑의 구호물자는 이남민중속에서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수재민들은 한겨레의 정에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수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까지 북녘형제들의 지극한 마음을 받아안고 싶어 저마다 한끼라도 이북의 쌀로 밥을 지어먹으려고 수재민과 쌀을 바꾸기도 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은정속에 마련된 구호물자는 이처럼 두꺼운 장벽을 뚫고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한겨레의식을 피여오르게 한 생명력이였고 민족의 혈맥을 이어놓게 하는 사랑의 가교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겨레끼리 주고받는 동포애의 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참말로 조국의 땅우에는 분렬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도 한혈맥으로 이어진 겨레의 마음속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동포애의 정으로 결합된 우리겨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이런 힘에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것입니다.≫

한지맥으로 이어진 하나의 강토우에 외세에 의한 분렬의 장벽은 가로놓여있어도 한겨레의 동포애의 정은 누구도 막을수 없고 하나로 이어지려는 혈육의 정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였다.

(계속)